

연재 송병선의 자정노선(自靖路線)과 무주(茂朱) 서벽정(棲碧亭) 영건(營建)

김종수*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원계(遠溪) 경영(經營)과 자정노선 | 참고문헌 |
| 3. 무주 서벽정 영건과 노선의 심화 | <Abstract> |

국문초록

조선 최후기인 현종·고종 연간을 활동기로 삼았던 연재 송병선은 우암 송시열의 9세손으로, 아우인 심석재 송병순과 더불어 근세 유학의 일파인 연재학파를 창시·공유한 거유이자 애국지사다. 그런데 연재학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송병선 1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이후로 이행한 자정노선에 대해서는 미처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급변 논의에서는 이른바 ‘포경입산(抱經入山)’으로 대변되는 송병선의 자정노선을 상징해 주는 전북 무주군에 소재한 서벽정을 전면에 내세운 연찬을 시도하게 되었다.

만동묘 훼손령에 뒤이은 1884년에 취해진 갑신변복령은 송병선의 인생 향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송병선의 삶에서 갑신변복령과 그에 따른 고종의 미온적인 태도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산속의 은둔 생활을 통해서 유학적 진리[吾道]를 위호하기 위한 자정노선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다가왔다. 이에 송병선은 1885년에 회덕현을 떠나 옥천의 원계로 이거를 단행하였고,

* 세명대학교 강사, E-mail: welcome-to@naver.com

이듬해인 1886년(51세)에 무주의 무이봉 아래에 강당형 건물인 서벽정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송병선이 택한 자정노선의 심화 국면을 상징하는 서벽정 영건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1892년에 중건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지만, 독서와 강학·저술 활동 및 음풍영월로 점철된 자정노선은 특이한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

송병선은 서벽정에서 『근사속록』에 대한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주저인 『무계만집』과 『동감강목』을 완성함과 동시에, 『무계시첩』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저술 활동에 병행하여 송병선은 아우인 송병순과 공동으로 춘추 강회를 개최하고, 계 조직을 통해서 학단을 이끌기도 하였다. 송병선이 서벽정에서 남긴 마지막 행적은 1903년(68세)에서 『송자대전·습유』를 정서(淨書)한 기록이나, 차후 송병순 주도하에 문인들에 의해 『연재집』의 간역(刊役)이 착수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송병선에 의한 서벽정 경영은 70세의 나이로 1905년에 순도(殉道)를 감행하기 이전 시기에 이행한 자정노선을 상징하는 역사적·문화적 공간임을 이해하게 된다.

주제어 : 송병선, 자정노선, 서벽정, 저술 활동, 강학 활동, 연재학과

1. 머리말

근대 전환기이자 조선 최후기인 현종(憲宗)·고종(高宗) 연간을 활동기로 삼았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선생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으로, 일평생을 학문 연구와 강학·저술 활동을 통해서 세도(世道)를 지탱하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거유이자 우국지사다. 아우인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 1839~1912)과 함께 연재학파를 창시·공유했던 송병선은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5적의 처단을 건의하기 위해 고종을 청대(請對)한 직후에 회덕의 “석촌정사(石邨精舍)에서 순도(殉道)함”으로써,¹⁾ 향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에 따라 연재학파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주로 송병선이 견지했던 위정적 사론과 생애 최후의 순간, 그리고 몇몇 편의 저술과 유람기(遊覽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송병선이 구축한 학문 세계의 특징과 함께, 1885년(50세) 이후로 이행한 자정노선(自靖路線)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

1)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2(한국문집총간 330), 『年譜[宋哲憲]』, <乙巳>,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4, 473쪽, “先生七十歲 ... 戊辰巳時, 先生殉道于石邨精舍.” 음력으로는 1905년 12월 24일이며, 양력으로는 1906년 1월 29일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연보」를 지은 아들인 지재(止齋) 송철현(1870~1947)의 이름은 생략하겠음.

대로 눈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이번의 논의에서는 송병선이 이행한 자정노선을 상징해 주는 무주(茂朱) 서벽정(棲碧亭)의 영건사(營建史)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건조물에서 이뤄진 저술·강학 활동의 실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송병선에 의한 서벽정 영건사를 탐구하는 작업이란, 검증하는 일체의 침탈 야욕에 대한 연재학파의 대응 의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또한 1992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건조물의 역사를 정밀하게 복원해 낸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창출해 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작업에 앞서 송병선이 무주와 인근한 옥천(沃川)의 원계(遠溪)에서 자정노선을 이행하게 된 경위를 우선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른바 원계 경영(經營)으로 명명함 직한 옥천에서의 활동과 서벽정 영건은 상호 표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의 논의가 여타 근세 유학의 유파(流派)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진한 연재학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범위를 다각화함과 동시에, 그간 잘못된 정보들에 포장되어 온 전라북도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지적 원천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2. 원계(遠溪) 경영(經營)과 자정노선(自靖路線)

송병선은 50세를 전후로 한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 대사헌(大司憲)에 제수(除授)되었을뿐더러, 옥천의 “원계에 땅을 가려 집을 지은[卜築]” 50세 3월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에 명해졌을²⁾ 정도로 대외적인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병선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에 걸쳐 고종을 청대(請對)한 건 외에는, 실제로 관직에 진출한 일이 없는 전형적인 산림형의 재야 유학자였다. 물론 송병선은 1877년(42세) 8월에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에 제수된 데 이어서,³⁾ 9월에는 다시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에 명해진⁴⁾ 이후로 “매년 세초[歲首]에 관례에 따라 선물이 내사(內賜)”되는⁵⁾ 등 고종으로부터 예

2) 宋秉璿, 『淵齋集 附錄』 卷51, 『年譜』, <乙酉>, 449쪽, “先生五十歲 ... 三月, 卜築于遠溪 ... 除吏曹參判.”

3) 宋秉璿, 『淵齋集 附錄』 卷51, 『年譜』, <丁丑>, 431쪽, “八月, 拜經筵官書筵官, 又遣史官, 宣諭召.”

4) 宋秉璿, 『淵齋集 附錄』 卷51, 『年譜』, <丁丑>, 431쪽, “九月, 蒙除侍講院諮議, 兼承駟召之命, 上疏辭.”

우가 융숭해지면서, “거의 유위(有爲)한 뜻을 둔” 적도 있었다.⁶⁾ 이때 송병선은 백씨를 대신해서 종종 일을 도울 생각으로 옥천의 오산(梧山)에서 “회덕의 한천(寒泉)으로 돌아오는”⁷⁾ 이주를 단행하였다.

그러던 차에 송병선이 세상사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기로 작심한 이면에는 1884년(49세)에 단행된 의제변개령(衣制變改令)[곧 갑신변복령]과 그에 따른 고종의 태도 때문이었다. 송병선은 동년 6월에 “절대 의복제도를 고치지 말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 공사(公私) 의제(衣制)가, 비록 반드시 모두 옛적 삼대[三古]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실로 황조(皇朝) 일왕(一王)의 제도니만큼, 어찌 선왕의 법복(法服)이 아니겠습니까?”⁸⁾라는 반문을 핵심 논지로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다. 그러자 고종은 “공사가 착복[服]한 것은 본디 고제(古制)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선 의제의 변통(變通)을 따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비답(批答)을 내렸다.⁹⁾ 이에 송병선은 7월에 다시 고종의 비답에 조목조목 반론을 가하는 <재소(再疏)>를 올리면서, 의제변개령으로 인해 “장차 나라는 나라가 아니며 사람은 사람이 아닌”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게 된다.¹⁰⁾ 그런데 고종은 송병선이 주달한 <재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소문의 봉입(捧入)을 금하는 조치를 취했다.¹¹⁾ 물론 고종은 6월에 내린 비답에서 송병선을 ‘임하숙망(林下宿望)’으로 칭하는 가운데, 세자 계도를 위해 출사(出仕)할 것을 종용했지만,¹²⁾ <재소>를 제기한 후에 미온적인 고종의 태도를 접한 이후로는 일말의 기대감을 완전히 접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제변개령은 송병선·병순 형제가 더는 “세상에 뜻이 없어서, 다시는 과거(科擧)를 보러 가지 않게” 결심했던 1865년 4월의 만동묘(萬東廟) 휘철령과 더불어,¹³⁾ 향후 자정노선을 암중 모색케 하는 계기적 사건으로 남게

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戊寅>, 432쪽, “正月 ... 自是, 每年歲首例下.”

6)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4(한국문집총간 續143), 『年譜』, <丁丑>, 한국고전번역원, 2012, 686쪽, “時伯氏先生選經筵之銜, 自上禮遇隆重, 庶幾有有爲之志, 先生挈還故庄.”

7) 宋秉珣, 『心石齋集』 卷34, 『年譜』, <丁丑>, 686쪽, “十一月, 搬還于懷德寒泉.”

8) 宋秉璿, 『淵齋集』 卷4, 『疏』, <辭大司憲, 仍請勿改衣制疏(甲申六月十九日甲申)>, 65쪽, “噫, 我國公私衣制, 雖未必舉合三古, 而實是皇朝一王之制, 則豈不是先王之法服乎.”

9)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甲申>, 448쪽, “批曰, 所陳無非可稽之論, 然曾往公私所服, 本非古制 ... 援古酌今, 刪繁就簡, 先從衣制變通者也.”

10) 宋秉璿, 『淵齋集』 卷4, 『疏』, <辭大司憲, 仍請勿改衣制疏[再疏](七月十一日)>, 65쪽, “臣伏讀聖批, 若曰曾往公私所服, 本非古制 ... 將至國不國而人不人, 可勝痛哉.”

11)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甲申>, 449쪽, “上留中不下批, 仍命例疏更勿捧入.”

12)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甲申>, 448쪽, “卿以林下宿望 ... 朝夕左右, 匡輔啓沃.”

되었다. 기실 송병선은 만동묘가 훼손된 이후부터 “드디어 산에 들어가는 계획을 결심한 끝에,” 익년 10월에 아우 송병순이 거주하던 옥천의 오산(梧山)으로 일시 이거한 사실도 있었다.¹⁴⁾ 그러던 차에 의제변개령을 접하게 되면서 이른바 ‘입산지계(入山之計)’로 대변되는 자정노선의 이행을 굳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만동묘 훼손령과 갑신변복령 때 보여준 송병선·병순 형제의 태도란, 연재학파의 시국 인식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도 있다.

아무튼 송철헌은 <연보>에서 “선생은 이때부터 (깊은) 산에 들어 헌정(獻靖)해서, 세상사와 사절(謝絕)하려는 뜻을 두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⁵⁾ 운위된 입산헌정(入山獻靖)이란 송병순이 1883년(45세)에 취한 포경입산(抱經入山)과 내용상 동의어로,¹⁶⁾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산속에 은둔하여 자정노선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자정노선이란 여말선초의 절의지사들이 선보인 세 가지 유형의 진퇴(進退)·행장관(行藏觀)인 순절(殉節)·항절(抗節)·정절(靖節)로까지 그 기원이 소급된다.¹⁷⁾ 호좌(湖左) 의진(義陳)을 이끌었던 의암(義庵) 류인석(柳麟錫, 1842~1915)은 이른바 ‘처변삼사(處變三事)’라는 새로운 논리의 제창을 통해서, 자정노선을 “스스로 다스리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¹⁸⁾ 즉, 류인석은 자정노선의 이행을 의병(義兵) 운동과 타국행을 통한 구제(舊制)의 수호와 함께, 점증하는 일제의 침탈 야욕에 대응할 수 있는 동등한 처신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정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몸을 깨끗이 가지는 일’로 정의한 방식¹⁹⁾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하

13)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乙丑>, 426쪽, “四月, 聞萬東廟撤享之命, 痛歎不已 ... 仍無意於世, 更不赴舉.”;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4, 『年譜』, <乙丑>, 681~682쪽, “四月, 聞萬東廟毀撤之令, 擬上疏請復享 ... 自是遂絕意舉業.”

14)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丙寅>, 426쪽, “十月, 移居于沃川之梧山, 自皇廟撤享後, 遂決入山之計, 與季氏, 移築於仲氏所寓之里.”

1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甲申>, 449쪽, “先生自是有入山獻靖, 謝絕世事之意.”

16)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4, 『年譜』, <癸未>, 688쪽, “二月, 抱經入沃川之活山, 先生決意避世, 遂入活山構精舍.”

17) 김종수, 2019, 『德谷 趙承肅과 『咸安趙氏言行錄』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40-41쪽.

18) 柳麟錫, 『毅菴集 I』 卷27(한국문집총간 337), 『雜著』, <雜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4, 233쪽, “乙未十一月, 弘集諸賊行勒削, 麟錫亟會士友, 議處變三事, 曰舉義掃清, 曰去之守舊, 曰自靖遂志.”

19) 김종수, 2019,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전북사학』 57, 전북사학회, 268쪽. 이 글의 <표 1>에는 약 25차례에 걸쳐서 송병선이 개최한 강회·향음례 활동의 현황이 잘 집계되어 있다.

게 된다. 당시 근세 유학의 일파를 창시했던 거유(巨儒)들의 경우, 다수가 유학적 진리(吾道)를 위호(衛護)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정노선을 선택한 가운데, “의병을 일으켜 소청(掃淸)하는” 항일(抗日) 운동에도 가담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여하간 1884년의 의제변개령 이후로 “준엄하면서도 온화한”²⁰⁾ 인품의 소유자인 송병선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경에 처했고, 마침내 익년 3월에 옥천의 “원계(遠溪)에 복축(卜築)하게” 된 사실을 <연보>는 아래처럼 전언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도 미처 상소문[疏]에 대한 비답을 받지 못한 터라, 고향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 이미 몇 칸의 집을 옥천의 원계 위쪽에 얹고, 이때 이르러 가족들[家]을 거느리고 들어와 거처하게 된 것이다.”²¹⁾

위의 인용문에는 갑신변복령을 전후로 한 무렵의 복합적인 심경과 함께, 이 건이 송병선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송병선이 하필 원계로 이거한 이면에는 가제인 송병순이 1883년(45세) 2월에 “경전을 안고 옥천의 활산(活山)에 들어” 서암산방(西巖山房)으로 명명한 정사(精舍)를 짓고, 자정노선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²⁾ 원계는 “활산과의 떨어진 정도가 언덕 하나의 사이가 뜬” 거리였기에,²³⁾ 형제가 “책상을 잇닿게 해서 도(道)를 논하는” 공동의 연찬이 가능했다.²⁴⁾ 이 같은 정황은 조만간 연재학파가 출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 보인 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송병선이 가칭 원계 경영을 통해서 자정노선의 이행에 착수한 뒤에도, “세자[東宮]를 보도(輔導)하고 옳고 바르게 기르는 방법은, 오직 강학(講學)에 달려 있다.”는 등의 변으로 임하석덕(林下碩德)으로 평한 연재의 출사(出仕)를 중용하는 고종의 선유(宣諭)는 계속되었다.²⁵⁾ 익년 4월에는 종2품 품계인 가의

20) 宋秉珣, 『心石齋集·附錄』卷34, 『年譜』, <己丑>, 691쪽, “蓋二先生氣像, 伯子嚴而和.”

21)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乙酉>, 449쪽, “自昨秋, 未蒙疏批, 不可晏處鄉第, 故昨冬, 已構數間屋子於沃川遠溪之上, 至是挈家入處.”

22) 宋秉珣, 『心石齋集·附錄』卷34, 『年譜』, <癸未>, 688쪽, “二月, 抱經入沃川之活山, 先生決意遯世, 遂入活山構精舍, 楣揭西巖山房.”

23) 宋秉珣, 『心石齋集·附錄』卷34, 『年譜』, <癸未>, 691쪽, “三月, 伯氏先生遯寓於遠溪... 距活山隔一岡也.”

24) 宋秉珣, 『心石齋集·附錄』卷34, 『年譜』, <己丑>, 691쪽, “蓋二先生氣像... 兩德相濟, 聯床論道, 時人比之宋之二程.”

대부(嘉義大夫)로 승격되기도 했지만,²⁶⁾ 송병선은 원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신에 송병선은 동년인 1886년 6월에 이르러 무주 덕유산의 심산유곡에 서벽정을 건립하게 된다.²⁷⁾ 마침내 “깊이 궁벽진 골짜기에 얹드려, 덕의(德義)를 회상하기를,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토로한 바와 같이,²⁸⁾ 오랫동안 품어왔던 염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차후 전개될 송병선의 서벽정 경영은 독서와 저술·강학 활동 및 음풍영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정노선의 실행이 구체화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무주(茂朱) 서벽정 영건과 노선의 심화

1) 서벽정 건립과 영건사(營建史)

이상에서 간추려 소개한 송병선의 서벽정 영건과 관련하여, 송철현은 <연보>를 통해서 아래처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두었다.

“선생은 1884년[甲申]의 소사(疏事) 이후로, 종적(踪跡)을 편안히 하기가 어려워, 분개한 듯 깊은 산에 들어 자정(自靖)하려는 의향을 두었다. 일찍이 주계(朱溪)[무주]의 동쪽 횡천(橫川)의 빼어난 지세며 풍경을 관찰하면서, 마침내 그 산수를 사랑해서 무이봉(武夷峯) 아래에 나아가 정자[亭]를 건축하고, 당인(唐人)[이백]의 시(詩) 중에 ‘나에게 왜 푸른 산에 사는지를 묻거든’의 뜻을 취하여 ‘서벽(棲碧)’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 또 반대로 (『열자』의) 큰 길거리[康衢]의 노랫말로써, 그 서서(西序)에 유아루(有我樓)라는 방문[榜]을 붙였으니, 나라의 경사 때 반사(頒賜)한 물품으로 이 정자를 쌓았으므로, 임금의 은혜를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다.”²⁹⁾

2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0쪽, “二月, 祇承宣諭, 諭曰 ... 東宮輔導養正之方, 惟在於講學, 而必資乎林下碩德.”

26)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0쪽, “四月, 陞嘉義大夫, 呈狀縣道辭.”

27)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1쪽, “六月, 棲碧亭成.”

28) 宋秉璿, 『淵齋集』 卷7, 『書』, <答鄭景箕(丙戌十月三日)>, 128쪽, “深伏窮谷, 遙想德義, 靡日不耿耿.”

29)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1쪽, “先生自甲申疏事以後, 踪跡難安, 慨然有深入自靖之意, 嘗觀朱溪東橫川之形勝, 遂愛其山水, 就武夷峯下築亭, 而取唐人詩問余何事棲碧山之意, 扁曰棲碧, 反用康衢謠語, 榜其西序曰有我樓, 蓋以邦慶時頒賜

윗글에는 의제변개령 이후로 송병선이 처한 울결한 심경에 따른 자정노선으로의 선회 장면과 함께, 무주 횡천의 덕유산 무이봉 아래에 서벽정을 건립하고, 이백(李白, 701~762)의 <산중문답(山中門答)>과 『열자(列子)』에서 정자와 서루(西樓)[서서]의 이름을 취한 경위 등이 차례대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태백의 시에서 이름을 따온 의도와 관련하여 “그 비둔(肥遯)하려는 뜻을 기록한 것”³⁰⁾이라는 미산(眉山)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해명도 참고할 만하다. 한장석은 1881년에 송병선이 고종에게 올린 8조로 된 <신사봉사(辛巳封事)>를 열람한 뒤에, “크게 세교(世教)에 도움이 있을 것”³¹⁾으로 칭찬했던 인물이다. 한편 “나라의 경사 때 반사(頒賜)한 물품” 운운한 대목은 1882년(47세)에 “세자가 이미 입학(入學)을 하고, 장차 가례(嘉禮)[관례]를 행할” 즈음에 시강원에서 “반사(頒賜)한 상전(賞典)”일 것으로 추정된다.³²⁾ 물론 그 이전인 1879년(44세)에 “왕세자(東宮)의 환후(患候)가 회복된 후에, 하사(頒賜)한 옷감[衣次]과 녹피(鹿皮) 등의 물품”³³⁾과 1880년에 “동궁이 천연두[痘患]에서 회복된 후에,” 세자시강원에서 내린 옷감[衣資]과 먹을거리 등의 물건³⁴⁾도 포함될 수 있으나, ‘국경(國慶)’이라는 표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하간 시강원 측의 반사품으로 서벽정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한 데 따라 ‘군은(君恩)’을 표한 대목은, “깊이 궁벽진 골짜기에 엮드린” 상황에서도 우국(憂國)의 일념은 여전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한편 송병선은 <연보>에 누락된 공기(工期)와 관련해서 “공사[功]를 1886년 [丙戌]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마쳤다.”고 기록해 두었다.³⁵⁾ 아마도 초봄인 2월 말경에 공사에 착수해서 6월에 완공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송병선이 건조물의 명칭을 서벽정으로 확정했지만, 평면의 형식이 정자라기보다는 서원

之物, 築斯亭, 故欲修君恩也.” 운위된 강구요어(康衢謠語)란 『열자』, 『중니(仲尼)』편의 ‘강구요(康衢謠)’[곧 격양가(擊壤歌)]를 지칭한 표현으로, 요(堯) 임금의 선정과 지덕(至德)을 예찬한 동요다.

- 30) 韓章錫, 『眉山集』 卷8(한국문집총간 322), 『記』, <棲碧堂記>,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4, 325쪽, “取李白詩語, 記其肥遯也.” 비둔(肥遯)은 『주역(周易)』의 둔괘(遯卦)의 “여유 있는 물러남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肥遯, 无不利)”에 전거를 둔 어휘다.
- 31)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辛巳>, 441쪽, “十一月, 上封事 ... 韓公章錫, 見而稱善曰, 大有補於世教.”
- 32)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壬午>, 441쪽, “正月 戊子 戊戌 ... 東宮已爲入學, 將行嘉禮.”; 같은 책, 441쪽, “壬寅, 東宮謁廟入學後, 頒賜賞典.”
- 33)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己卯>, 435쪽, “昨冬, 東宮患候平復後, 頒賜衣次與鹿皮等物.”
- 34)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庚辰>, 437쪽, “正月, 呈辭兩殿賞賜衣資食物, 東宮痘患平復後, 自兩殿別有春坊官頒賜之典.”
- 35)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功始於丙戌春, 訖于夏.”

(書院)의 강당(講堂) 형식과 같다는 지적³⁶⁾에 동의하게 된다, 한장석이 <서벽당기>라는 제하의 기문(記文)을 찬(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한장석은 이 기문에서 “동당(東堂)과 서루(西樓)는 조망하기 좋게 하고, 가운데는 온돌방을 만들어 누워 쉬기에 편리하게 하고, 위로 두 개의 층으로 된 다락을 두어, 책을 보관하는 곳을 만들었다.”³⁷⁾고 건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누정(樓亭)과는 다른 양식의 건물임을 직감할 수 있다. 실제 송병선 또한 “동당과 서루에, 가운데는 온돌방을 두어, 합쳐서 세 칸살[架]이고, 집 위에 또 층(層) 집을 일으켜, 서책을 보관하는 다락으로 삼았다.”고 건조물의 단면 구조를 묘사해 두었던바,³⁸⁾ 이는 한장석의 <서벽당기>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앞의 인용문에 이어서 “무이봉으로 인해 그 동(洞)을 이름하여 무계(武溪)라” 명하였는데,³⁹⁾ 이러한 작명 조처는 주변 지대에 대한 의미 부여 작업의 성격을 띤다. 또한 ‘무계’ 운운한 작명법이란, “공자(孔子)를 배우고자 하거든, 응당 먼저 주자(朱子)를 배워야 마땅하다.”⁴⁰⁾며 절대시했던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송병선이 “산 이름이 우연히 무이(武夷)와 같은 까닭에, 일동(一洞)을 무이라 칭했으나, 회옹(晦翁)[주자]이 슬그머니 나의 천석(泉石)에서 읊조리는 바의 것이, 정히 오늘의 도(道)를 위함이다.”는 말로써,⁴¹⁾ 자신이 선택한 자정노선의 정당화 작업을 주자의 행적으로 환원시킨 대목을 통해서도 판단의 적실성이 확인된다. 이처럼 동천(洞天)의 명칭을 무계계곡으로 확정한 송병선은 괴산(槐山)에 소재한 “화양동(華陽洞)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계곡[曲]마다 이름을 정하는” 후속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은구암(隱龜巖)[제1곡], 와룡담(臥龍潭)[제2곡], 학소대(鶴巢臺)·도화담(桃花潭)·대은굴(大隱窟)·일사대(一士臺)[제3곡], 함벽소(涵碧沼)[제4곡], 벽하담(碧霞潭)[제5곡], 가의암(可意巖)[제6곡], 추월담(秋月潭)

36) 오인교, 『남도(南道) 정자기행(3257)-무주 서벽정(棲碧亭)』, 『한국매일(2016.3.17.)』

37) 韓章錫, 『眉山集』 卷8, 『記』, <棲碧堂記>, 325쪽, “東堂西樓, 以供眺望, 中爲煖室, 以便偃息, 上有重屋, 以爲藏書之所。堂曰棲碧

38)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東堂西樓, 煖室居中, 合三架而室上又層起, 爲藏書之樓。”

39)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1쪽, “因武夷峯, 名其洞曰武溪。”

40) 宋秉璿, 『淵齋集』 卷17, 『雜著』, <隨聞雜識>, 282쪽, “欲學孔子, 當先學朱子, 欲學朱子, 當先學尤翁。”

41) 宋秉璿, 『淵齋集』 卷7, 『書』, <答鄭景箕(丙戌十月三日)>, 128-129쪽, “山名偶同於武夷, 故一洞稱之以武溪, 晦翁所咏居然我泉石者, 正爲今日道也。”

[제7곡], 만조탄(晩釣灘)[제8곡], 파회은선병(巴洄隱仙屏)[제9곡].”⁴²⁾

『연재집』의 <연보>에는 나열한 9곡 중에서 “정자는 제3곡에 있다.”는 설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거북·용·학 및 복숭아꽃 따위와 같은 상징물이 호출된 가운데, 주로 맑은 계곡수를 다채롭게 형상화해 보인 작명법으로 감상된다. 송병선이 굳이 건조물의 명칭을 ‘정자[亭]’로 은유했던 이면에는, 이처럼 맑은 계곡 가에서 대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네 부류의 작명이 이뤄진 일사대 일대(一帶)는 무주 구천동의 3대 경승지 중에 하나로, 2009년 9월에 이르러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청에 의해 명승(名勝) 제55호로 지정되었다.⁴³⁾ 그런데 일사대라는 명칭은 송병선이 1858년(23세)에 지은 자호(自號)인 ‘동방일사(東方一士)’⁴⁴⁾에서 연원한 듯하다. 이처럼 원대(遠大)한 입지(立志)를 다지면서 고상(高尚)한 제행(制行)을 추구하고자 했던 송병선의 의지가 투영된 일사대와 관련해서, 한장석은 아래처럼 부연해 두었다.

“대(臺)는 일사대(一士臺)라고 했으니, 커다란 바위가 그 서편에 우뚝 서 있는데, 초연히 세상을 저버리고 홀로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있다. 공이 일찍이 자호를 ‘동방일사’라 하였으니, 취하여 (거암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⁴⁵⁾

아마도 윗글은 송병선이 자호를 “우뚝하기가 마치 배 바닥의 돛을 다는 기둥[帆樑]”에 탁의(託意)했다고 밝힌 <서벽정기>의 해당 내용⁴⁶⁾을 참조한 뒤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사대 외에도, 송병선은 몇 리(里)에 걸쳐 뻗쳐있는 넓직한 반석(盤石)을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휘돌아 소[潭]를 이루어, 깊어서 밑

42)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丙戌>, 451쪽, “依華陽故事, 隨曲定名, 第一曲曰隱龜巖, 二曰臥龍潭, 三曰鶴巢臺·桃花潭·大隱窟·一士臺, 四曰涵碧沼, 五曰碧霞潭, 六曰可意巖, 七曰秋月潭, 八曰晚釣灘, 九曰巴洄隱仙屏, 而亭在第三曲.”

4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출처: <https://www.heritage.go.kr>]

44)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3, 『行狀[宋秉璿]』, <戊午>, 478쪽, “立志必以遠大自期, 制行必以高潔爲尚, 且守固窮之操, 自號曰東方一士.” 이하에서는 「행장」의 찬자인 송병순은 생략하겠음.

45) 韓章錫, 『眉山集』 卷8, 『記』, <棲碧堂記>, 325쪽, “臺曰一士, 鉅巖峙其西, 超然有遺世獨立之像, 公嘗自號東方一士. 取以自況也.”

46)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樓西蒼巖作臺, 屹若帆樑, 超然有遺世獨立之像, 故欲託意而以一士刻之.”

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배를 띄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기에, ‘도화(桃花)’로 이름지었다.”⁴⁷⁾고 하여 도화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송병선이 서벽정을 창건한 시기는 기록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일사대 일원(一圓)으로 상징되는 무주와 인연을 맺은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 아마도 송병선이 31세가 되던 1866년(고종 3) 8월에 금오산(金烏山) 유람에 나서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유적을 심방한 뒤에,⁴⁸⁾ 귀로에 외제(外弟)인 성재(省齋) 김영응(金永膺)과 함께 “무주에 가서 적상산[赤裳]의 단풍풍경을 완상했던”⁴⁹⁾ 일이 첫 대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일 송병선은 “적상산성에 방비 시설을 하여 국사(國史)를 깊숙이 감추었으니, 한(漢)나라의 석실(石室)과 같다.”⁵⁰⁾며 사고(史庫)를 갖춘 산읍(山邑)인 무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⁵⁰⁾ 또한 <유금오산기(遊金烏山記)>에는 먼동이 틀 무렵에 출발해서 구미(龜尾)의 “장령(長嶺)을 넘어, 저녁에 오봉점(梧峯店)에 투숙했는데, 무주 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⁵¹⁾ 따라서 고종 23년(1886)에 친구의 소개로 무주 구천동을 찾았다가 아름다움에 반해 수성대(水城臺)[일사대]에 정자를 건립한 것으로 설명한 『두산백과』의 <서벽정> 항목⁵²⁾은 기원 미상(未詳)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자를 무주의 수성대[水城]에 얹었다.”는 편지글과 같이, 송병선이 일사대로 개명하기 이전에는 ‘수성대’로 칭한 사실은 정당하다. 그런데 1886년 10월에 송병선이 조암(照菴) 정해필(鄭海弼, 1831~1887)에게 전한 서신인 <답정경기(答鄭景箕)> 중에는, 옥천과 서벽정이 자리한 일사대와의 거리에 대해서 아래처럼 서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명구(名區)를 골라 건물을 지어, 내 남은 인생을 마치는 것은 여러 해 동안의 지극한 소원[至願]이었는데, 금년 봄에 비로소 (이 뜻을) 이루어, 정자를 무주의 수성대[水城]에 얹었습니다. (원계

47)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檻下盤石, 亘布數里, 溪流被面, 匯而成潭, 深無底測, 可以泛舟下上, 故以桃花名之.”

48)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丙寅>, 426쪽, “八月, 遊金烏山 ... 抵善山南通村, 尋吉冶隱舊墟, 登採薇亭, 入敬慕閣.”

49)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丙寅>, 426쪽, “轉到吳山 ... 轉向梅江, 謁栗谷·玉山二先生書院, 因與省齋金公, 往茂朱, 賞赤裳楓景.”

50)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朱溪邑誌序>, 410쪽, “雖一叢爾山邑, 而赤裳設險, 秘藏國史, 如漢之石室, 其所關重, 自不與他州等也.”

51) 宋秉璿, 『淵齋集』 卷19, 『雜著』, <遊金烏山記>, 321쪽, “丁卯, 昧爽發, 東玉未偕, 聖禮始伴, 踰長嶺, 暮投梧峯店, 茂朱地也.”

52) 『두산백과』, <서벽정>[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의) 집에서 한나절 거리[程]인데, 천석(泉石)이 자못 빼어나고, 그 앞으로는 해맑은 소[潭]가 임해서, 넉넉히 배를 나란히 할 만하니, 또한 하나의 별계(別界)입니다.”⁵³⁾

위의 인용문에는 오랫동안 꿈꿔 왔던 별서(別墅) 건립을 별천지에서 이뤄낸 송병선의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옥천 원계의 집에서 서벽정 간의 거리가 “한나절 거리”에 불과하다는 지리적 정보가 아울러 수록되어 있다. 원래 무주는 경상우도의 거창(居昌)과 접경을 이루어 “주계(朱溪)의 군(郡) 형세란, 호남[湖]·영남[嶺]의 사이에 끼여 있다.”⁵⁴⁾는 지형학적 특성이 있을뿐더러, 호서권의 영동군과도 경계를 이루어 삼남도(三南道)가 모두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차후 원계는 지금의 충북 영동군 양강면 원계리로 행정 구역이 재편된다. 그런데 송병선은 1866년에 적성산을 유람한 이후로는 무주를 찾을 기회가 없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약 20년 뒤인 1884년 가을에 누군가로부터 무주 구천동 “횡천(橫川)의 형승(形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흔쾌히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서식(棲息)할 장소로 선택하였으나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선뜻 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했다고 한다.⁵⁵⁾ 그러던 차에 1885년(50세) 3월에 기존 회덕현에서 “원계에 복축(卜築)”함으로써, 무주 일사대 일원과 “겨우 한나절 거리”로 조절되면서⁵⁶⁾ “수성대[水城]의 요지에 터를 얻어” 대대적인 별축(別築) 구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⁷⁾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여러 해 동안의 지극한 소원”을 이룬 송병선은 건물이 낙성(落成)을 고한 당일에 <서벽정>이라는 제하의 오언율시 한 수(首)를 읊조리면서 크나큰 기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옥이 품어 온 십여 년 동안의 뜻

53) 宋秉璿, 『淵齋集』 卷7, 『書』, <答鄭景箕(丙戌十月三日)>, 128쪽, “卜築名區, 終吾餘生, 是積年至願, 今春始遂, 構亭于茂朱之水城, 去家半日程而泉石頗勝, 前臨澄潭, 可以方舟, 亦一別界也.”

54)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朱溪邑誌序>, 410쪽, “朱溪之爲郡, 介於湖嶺之間.” 1414년(태종 14)에 기존 무풍현(茂豐縣)과 주계현(朱溪縣)을 통합하여 무주현(茂朱縣)이 되었고, 1895년(고종 32)에 이르러 무주군으로 개칭되었다.

55)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往歲, 聞橫川之形勝, 欣然恣遊竊搜而歸, 竊欲占取以爲棲息之所, 而地迴力綿, 未易經始矣.”

56)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往歲, 聞橫川之形勝 ... 故挈家而入沃州山中, 距其地僅半日程也.”

57)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於是, 大擬別築, 得址於水城之要.”

오늘에야 새 정자를 일으켰네
 흐르는 물은 밝기가 흡사 거울과도 같고
 우뚝한 절벽은 휘감기어 병풍이 되었어라
 지경이 깊으니 어찌 세속에 물들리오
 창이 고요하니 경전 담론하기에 좋으니
 청복(淸福)은 오직 임금님이 주신 것
 배회하는 사이에 달빛이 뜰에 가득해졌네.”⁵⁸⁾

위의 시에는 서벽정을 창건하기까지의 경위와 흡족한 주변 정경, 그리고 군은(君恩)에 대한 고마움과 밤늦은 시간에 소요유(逍遙遊)를 만끽했던 정황 등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다. 나아가 송병선은 서벽정을 증건한 후에 지은 기문인 <서벽정기>(1891)를 통해서, 아래처럼 진중한 결의를 재차 다져 보이기도 했음이 눈길을 끌게 한다.

“아! 무명옷에 갈포(葛布)로 만든 두건을 쓰고, 이곳에서 소요(逍遙)하노니, 무릇 세간의 영고성쇠[升沈]며 이익과 손해, 이 모든 것들이 심경(心境)에 들지 못하여, 때때로 거문고를 안고 달과 마주하여, <감군은(感君恩)> 한 곡(曲)을 불러 마치노라. 저 천명(天命)을 즐기어 내 생을 마친다면, 거의 서벽정[棲碧]에서 다진 초심(初心)을 저버리지 않으리!”⁵⁹⁾

1886년에 창작한 시 작품인 <서벽정>과 짝을 이루는 위의 기문은 송병선이 이곳에서 영위한 서벽정 경영(經營)이 득의한 결실로 이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서벽정은 창건한 지 불과 5년 만인 1891년 봄에 “홀연히 울수(鬱攸)[화마]의 재앙을 입게” 되는 비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불선(不善)한 사람의 모략으로, 갑자기 화겁(火劫)을 입었으니, 그 들인 공(功)을 탄식한다.”⁶⁰⁾는 기록으로 미뤄보건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였을 것으로 사료된

58) 宋秉璿, 『淵齋集』 卷2, 『詩』, <棲碧亭>, 31-32쪽, “幽棲十載志, 今日起新亭, 流水明如鏡, 蒼崖繞作屏, 境深何染俗, 牕靜可談經, 淸福惟君賜, 徘徊月滿庭.”

59)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噫, 布衣葛巾, 逍遙於斯, 凡世間升沈得失. 舉不入於心境. 而時或抱琴對月. 唱罷感君恩一曲, 樂夫天命, 以終吾生, 則庶不負棲碧之初心矣.” <감군은>은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온 악장의 하나로, 임금의 은덕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거문고의 악보로도 사용되며, 궁중의 연회 시에 연주되었다고 한다.

다. 그런데 빈한한 처지였던 송병선은 자력으로 건물을 다시 짓기가 어려운 상태였다.⁶¹⁾ 송병선은 서벽정을 다시 중건(重建)하게 된 과정과 함께, 새로 지은 건물을 이전의 그것과 비교해서 아래처럼 기록해 두었다.

“(이에) 원근의 오랜 친구들이 그 (건물이) 황폐해진 것을 애석하게 여겨, 재물을 출연하고 서로 도와서, 하여금 건물을 이루게 되었다. 마침내 옛터의 왼쪽 위로 10여 보쯤에, 평평한 산등성이를 베개 삼아서 열개를 만들었으며, 이전의 제도[舊制]에 비해서 또한 확장[增]된 바가 있으니, 진실로 걸음을 옮김에 형상이 바뀐다는 것이다.”⁶²⁾

정면 4칸에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집으로 이뤄진 새 건물은 “동당과 서루에, 가운데는 온돌방을 두어, 합쳐서 3 칸살[架]이고, 집 위에 또 층(層) 집을 일으킨” 옛 건물보다 확장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송병선은 서벽정 중건 공사에 임한 동지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가운데, “맑은 술과 두툼한 희생(犧牲)”을 차려서 두 번 다시 재액(災厄)이 발생하지 않기를 신불(神佛)에게 간절하게 기원하는 의식[齋]을 거행하기도 했다.⁶³⁾ 한편 송병선은 <연보>를 통해서 1892년(고종 29) “7월에 서벽정을 중건하고, 주자[朱]·송자[宋] 두 선생의 진상(眞像) 및 유서(遺書)를 함에 보관하였다.”고 기록해 두었다.⁶⁴⁾ 이 기록대로라면, 1897년에 무주 군수 조병유(趙秉瑜)가 주자와 송시열의 초상을 봉안했다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설명은 오류임이 명백해진다. 또한 송병선은 매년 한창 더운 여름에 서벽정에서 한 철을 보냈고,⁶⁵⁾ 원고를 가다듬는 등 집중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면 수시로 이곳을 찾곤 했다.

60) 宋秉璿, 『淵齋集』 卷29, 「祝文」, <棲碧亭重建開基告文>, 39쪽, “晚迺卜築, 不善人謀, 遽被火劫, 歎其費功.”

61)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亭成之六年辛卯春, 忽被鬱攸之災, 家貧力綿, 難復營建.” ‘울수’는 불을 맡은 신(神)의 이름으로 화기(火氣), 곧 화마를 뜻한다.

62)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遠近知舊, 惜其荒廢, 出財相助, 俾有以成之, 遂就故址左上十餘武, 枕平岡而結構, 視舊制亦有所增, 誠移步而換形者也.”

63) 宋秉璿, 『淵齋集』 卷29, 「祝文」, <棲碧亭重建開基告文>, 39쪽, “重建是營, 同志效力, 募工可成, 惟神孔惠, 庶不我遐, 于以災厄, 無復有加, 抱書臥雲, 終老于此, 神之佑之, 寧敢諉矣, 我其報賽, 永世無斃, 酒清牲肥, 願垂歆格.”

64)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壬辰>, 454쪽, “七月, 重建棲碧亭 ... 而櫃藏朱, 宋兩夫子眞像與遺書.”; 宋秉珣,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壬辰>, 629~630쪽, “重葺棲碧亭, 櫃藏朱宋兩先生眞像及遺書.”

6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壬辰>, 454쪽, “先生每於盛夏, 避暑于此.”

그런데 1892년에 증건한 서벽정의 평면 구도에 관해서는 『디지털무주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풍부한 설명을 수록해 두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세세한 묘사가 불필요하다. 대신에 새로 건물을 건립한 뒤에 지은 기문을 통해서 피력한 송병선의 심회와 다짐, 즉 “이에 산은 더욱 수려해졌고, 물도 더욱 맑아져서, 난간 바깥의 못 산들이, 마치 장차 두 손을 마주 잡고 인사[揖]하며 하례하려 하는 듯하니, 뜻[情]을 그윽하고 원대하게 동여맨다면, 거의 만년[晩暮]의 바램을 이룰 수 있으리라!”⁶⁶⁾라는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이번 제1)절의 논의를 서둘러 일단락 짓도록 하겠다. 기문을 통해서 피력한 소원이란, “경서를 안고 구름에 누워, 이곳에서 늙음을 마치겠다.”고 토로한 <서벽정증건개기고문(棲碧亭重建開基告文)>⁶⁷⁾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제 송병선이 <서벽정기>를 빌려서 피력해 보인 이른바 “만년[晩暮]의 바램”, 곧 서벽정 경영을 통해서 이행한 자정노선의 주요 국면들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한다. 그 대체는 독서와 저술 및 강학 활동, 그리고 소요유와 음풍영월(吟風詠月)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지만, 제한된 지면 사정을 고려해서 저술과 강학 활동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자정노선의 주요 국면

(1) 저술 활동

송병선은 39세 때 『근사속록(近思續錄)』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로, 『동유연원록(東儒淵源錄)』(46세)과 『무계만집(武夷漫輯)』(54세) 및 『동감강목(東鑑綱目)』(65세) 등의 저서들을 차례대로 완성하였다. 열거한 4대 저서 외에도, 기존 『송자대전(宋子大全)』에서 빠진 글들을 모아서 5책으로 편성한 것이라든가, 혹은 선조인 우암이 미처 간행하지 못했던 『어류소분(語類小分)』을 보충한 유고(遺藁)도 저술 목록에 포함된다.⁶⁸⁾ 그러나 이번 항의 논의에서는 소위 ‘4대 편저[編]’⁶⁹⁾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남계(南溪) 박세체

66) 宋秉璿, 『淵齋集』 卷26, 「記」, <棲碧亭記>, 457쪽, “於是, 山益秀, 水益清, 欄外羣巒, 若將拱揖而賀, 結情幽遠, 庶可遂晩暮之願矣.”

67) 宋秉璿, 『淵齋集』 卷29, 「祝文」, <棲碧亭重建開基告文>, 39쪽, “抱書臥雲, 終老于此.”

68) 宋秉璿,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 644쪽, “又攬粹文正公大全中所逸書, 編成五冊, 且惜文正公所編語類小分, 未曾刊行而有散失者幾帙, 續抄補入, 謀鈔梓而未果焉.”

69) 宋秉璿,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 644쪽, “先生之所嘗纂述者,

(朴世采, 1631~1695)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이 “사실에 어긋남이 많아 정밀하지 못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의 범례에 의거하여 완성한 『동유연원록』의 경우,⁷⁰⁾ 서벽정이 건립되기 이전인 1881년에 찬술되었으므로, 이 책 또한 논외로 밀쳐 두기로 한다.

그런데 1874년 7월에 선보인 『근사속록』의 경우,⁷¹⁾ 1895년에 서벽정에서 문인들과 더불어 교감(校勘) 작업을 행하였으므로,⁷²⁾ 이 부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송병선은 『근사속록』에서 “정암[靜]·퇴계[退]·율곡[栗]·사계[沙]·우암[尤] 다섯 선생이 남긴 서책을 좇아서, 그 요긴한 골자[要領]를 찬집[纂輯]하고,” 또 “(북송의) 다섯 선생을 다룬 『근사록』의 범식을 본받아서, 조(條)를 나누고 유(類)를 구분한 다음, 편집해서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밝혀 두었다.⁷³⁾ 또한 송병선은 <근사속록서(近思續錄序)>를 통해서 주돈이(周敦頤)에서 소옹(邵雍)에 이르는 이른바 북송오자(北宋五子)와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 및 송시열 간의 유비(類比)를 제시해 두기도 했다.⁷⁴⁾ 그런 점에서 『근사속록』은 19세기 후반의 조선판 『근사록』이라 평할 만하다.

본 논의의 흐름과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송병선이 1895년 5월에 “서벽정에 가서 『근사속록』을 교감(校勘)”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해는 바로 주자와 여동래(呂東萊)[여조겸]가 『근사록』을 편집하여 완성한 연도기에, 이 달에 선생은 문인들과 더불어 『근사속록[續錄]』을 교정(校訂)하고, 인하여 감음시(感吟詩)를 읊었다.”⁷⁵⁾는 부연 설명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무계산정(武夷山亭)’은 연재의 저술 공간이자, 문인들과 야심한 시간까지 “상(床)을 대하고 재차 서로 의론”을 나눈 공동 연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이 확인

有四大編，近思續錄，明道學之傳授也，東儒淵源錄，集道統之文獻也，武夷謾輯，蒐治平之要法也，東鑑綱目，乃慕效孔朱之筆法也，此皆出於平生精力也。” <백씨연재선생행장>은 『淵齋集』 卷53의 「附錄」에는 <行狀[宋秉珣]>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70)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辛巳>, 440쪽, “六月, 東儒淵源錄成 ... 而朴玄石師友錄, 爽實多不精, 故依伊洛淵源錄例, 以圃隱爲首, 終於尤菴門人, 合爲十冊.”

71)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甲戌>, 429쪽, “七月, 近思續錄成.”

72)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乙未>, 456쪽, “五月, 往棲碧亭, 校勘近思續錄.”

73)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辛巳>, 429쪽, “先生就靜, 退·栗·沙·尤五先生遺書, 纂輯其要領 ... 做五子近思錄之例, 條分類別, 編爲是書.”

74)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近思續錄序>, 393쪽, “蓋靜菴·退溪作於前 ... 有似乎濂溪周子, 栗谷·沙溪繼其後, 闡明大備, 又同於程·張夫子, 尤菴晚出, 發揮運用, 殆若紫陽之夫子, 猗歟盛哉.”

7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乙未>, 456쪽, “是歲, 乃朱子與呂東萊編成近思錄之年, 故是月, 先生與門人, 校訂續錄, 仍賦感吟詩.” 주자와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은 1178년 4월에 『근사록』을 완성하였다.

된다.⁷⁶⁾ 이때 송병선은 문인 이병호(李秉瑚)·정석채(鄭奭采)·안성환(安成煥) 등과 더불어 “운자[韻]를 뽑아 서로 화답하고, 안성환[稗章]이 여러 작품을 거둬 들여 취합한 뒤에, (이를) 베끼어 시첩[帖] 하나를 만들었다.”고 한다.⁷⁷⁾ 아쉽게도 『무계시첩(武溪詩帖)』으로 명명한 이 책 전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대신에, 『연재집』에는 발문(跋文)만 수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은 서벽정 경영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일국 경제(經濟)에의 구상을 담은 『무계만집』을 저술하기도 했다.⁷⁸⁾ 송병선이 온축한 경세가(經世家)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방증해 주는 『무계만집』의 경우, “선생은 비록 임천(林泉)에 거처하고 있지만, 경제의 계책을 일찍이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⁷⁹⁾는 지적에 공감할 표하게 한다. 굳이 서명으로 ‘무계’라는 어휘를 간택한 것은, “지나간 몇 해 사이에 마음과 세상이 서로 어긋나, 산골짜기에서 문을 닫아 막고, 한가하고 느긋하게 자적(自適)하기”⁸⁰⁾ 위한 서벽정 영건에 착수한 이후인 1887년 가을에 저술에 착수하여 1889년 4월에 이 책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⁸¹⁾ 『무계만집』은 “우리 동방의 선유(先儒) 및 제가(諸家)의 설들을 모두 취합[摭摭]해서, 『대학(大學)』의 3강령과 8조목의 법식에 의거하여, 3권으로 나누어” 경제서로,⁸²⁾ 치도(治道)·치법(治法)·치교(治教)로 삼분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⁸³⁾ 총 24조목으로 세분화된 『무계만집』은 제2편인 「치법」만 하더라도, <입기강(立紀綱)·논법령(論法令)·제전부(制田賦)·정관록(定官祿)·논선거(論選舉)·수군정(修軍政)·표귀천(表貴賤)·리재용(理財用)>⁸⁴⁾ 등의 국정 현안들을 망라하는 일국 경제의 규모와 포부가 아울러 감지된다. 이에 송병선은 『무계만

76) 宋秉璿, 『淵齋集』卷2, 「詩」, <與李聖器秉瑚·鄭大卿·安稗章成煥 諸君, 會武溪山亭, 校近思續錄, 拈韻求和>, 33쪽, “乙未仲夏月, 同志會三四, 續編有校役 ... 對床更相議, 泉響入戶冷, 燈光到夜遠 ...”

77) 宋秉璿, 『淵齋集』卷2, 「跋」, <書武溪詩帖後>, 11쪽, “於是拈韻唱和, 稗章收取諸作, 寫爲一帖.”

78)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先生五十四歲 ... 四月, 武溪謾輯成.”

79)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先生雖處乎林泉, 經濟之策, 未嘗忘于心.”

80) 宋秉璿, 『淵齋集』卷23, 「序」, <武溪謾輯序>, 399쪽, “自近年心與世違, 杜門山谷, 優遊自適.”

81)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始於丁亥秋, 而至是成.”

82)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乃摭摭我東先儒及諸家說, 而依大學三綱八條之例, 分爲三卷.”

83)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其一曰治道, 其目曰務修身 ... 其二曰治法 ... 其三曰治教, 其目曰興學校 ... 理工商, 識時務.”

84)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3쪽, “其二曰治法, 其目曰立紀綱, 論法令, 制田賦, 定官祿, 論選舉, 修軍政, 表貴賤, 理財用.”

집』에 대해서 아래처럼 자평하기도 했다.

“문장[辭]은 간요하고 이치는 명쾌하며, 체용(體用)이 두루 구비하여, 찬연(粲然)히 일왕(一王)의 법(法)이 되리니, 정자(程子)의 이른바 ‘3대의 정치를 회복할진저!’라고 한 것이, 그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⁸⁵⁾

그리하여 송병선은 『무계만집』을 국왕에게 바친다면 “덕례(德禮)에 보탬이 되는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책을 껴안고 방황하기도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⁸⁶⁾ 그런데 그 어떤 연유로 『무계만집』의 초본(初本)을 유실(遺失)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송병선은 4년 뒤인 1893년 6월에 “여러 문하생이 서벽정에 모여서, 다시 『무계만집』을 베끼는”⁸⁷⁾ 등사(謄寫)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전하는 『무계만집』은 1893년에 등사된 계사본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계만집』은 송병선이 46세 때 고종에게 주달(奏達)한 <신사봉사(辛巳封事)>와 함께 경세가적 면모를 가늠할만한 양대 자료로 남게 되었다.

차후인 1900년에 이르러 송병선은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조(本朝) 철종(哲宗) 계해년[癸亥, 1863]에 이르기까지 도합[合] 1195년을 총 27권”에 실은 방대한 역사서인 『동감강목』을 저술하기도 했다.⁸⁸⁾ 다만, 서벽정에서 『동감강목』의 저술을 위해 분주했던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이 서책 또한 송병선이 견지했던 일관된 화두인 춘추의리사상이 기저를 관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송병선은 기존의 역사서가 “산란(散亂)하여 계통이 없어서, 족히 포핍(褒貶)·권징(勸懲)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한결같이 자양(紫陽)[주자]의 필법(筆法)을 준수해서” 『동감강목』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⁸⁹⁾ 다시 말해서 송병선 역시 독자적인 역사의식에 입각하여 필삭

85) 宋秉璿, 『淵齋集』卷23, 『序』, <武溪謾輯序>, 399쪽, “辭要理明, 體用備具, 粲然爲一王之法, 程子所言三代之治可復也者, 其在斯歟.”

86) 宋秉璿, 『淵齋集』卷23, 『序』, <武溪謾輯序>, 399쪽, “欲以是進於吾君, 冀其庶有補於德禮之效. 而抱書彷徨, 無以伸芹曝之誠, 後之覽者. 或可悲其情而恕之否耶.”

87)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己丑>, 455쪽, “六月, 會諸生于棲碧亭, 更抄武溪謾輯, 初本見失, 故更爲抄出.”

88)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庚子>, 459쪽, “六月, 東鑑綱目成 ... 起自新羅文武王八年己巳, 至于本朝哲宗癸亥, 合一千一百九十五年總二十七卷.” ‘철종 계해’는 고종이 즉위한 1864년[甲子] 직전 연도에 해당한다.

89)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庚子>, 459쪽, “先生以東方史氏數十餘家, 詳略

(筆削)을 가했던 공자(孔子)를 계승한 주자가 『춘추(春秋)』의 대의명분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자치통감절목(資治通鑑綱目)』의 필법을 전승하는 차원에서 『동감강목』을 서술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05년 12월 23일(음)에 송병선은 승정원(承政院)을 방문해서 고종과의 알현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⁹⁰⁾ 하루 전날에 송병선은 “구차하게 생활(生活)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공자[孔]·주자[朱]·송자[宋] 세 선생의 도(道)가 내 몸에 이르러 멀하여 없어짐이니, 어찌 살아가겠는가? 나는 장차 상황[遇]에 따라 살아갈 일을 결정하겠다!”⁹¹⁾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그런 다음에 조카인 정헌(廷憲)에게 “내가 뜻한 사업[事] 중엔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서, 한스럽다.”고 운을 떼면서 『어류소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환기시키는 가운데,⁹²⁾ 주요 저서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조카에게 전한 아래의 당부 사항은 송병선이 자신의 주저(主著)들에 부여한 의미가 남달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무계만집』과 『동감강목』 및 『동유연원록』은 또한 더 생각해서 헤아려야 할 곳이 많이 있으니, 저술의 초고(草稿)에 정산(精刪)을 가하기를 극진하게 하되, 반드시 호대(浩大)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등의 일들일랑, 돌아가서 너의 중부(仲父)[심석재]에게 전언하여,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하거라!”⁹³⁾

윗글은 송병선이 『동감강목』을 서술할 때 적용한 ‘정밀[精]·간략함[簡]’이라는 저술 원칙을 일관되게 선호했다는 사실 외에도, 『무계만집』·『동감강목』·『동유연원록』이 어둡고 짙 막힌 ‘회색(晦塞)’의 시대⁹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에 충만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그 단서의 일단

不同，散亂無統，不足爲褒貶勸懲之資，故一遵紫陽筆法，就其舊史，刪冗補漏，表年著統，大小提要，務從精簡。”

90)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乙巳·壬戌>, 466쪽, “壬戌, 詣政院陳疏請對.”

91)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乙巳·壬戌>, 467쪽, “前一日 ... 先生曰, 吾處此天地大變之日 ... 苟求生活, 是孔朱宋三夫子之道, 至吾身而滅亡, 何以生爲, 吾將隨遇處之.”

92)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乙巳·壬戌>, 467쪽, “又命廷憲曰, 吾志事未就者多, 可恨, 語類小分, 欲爲修正刊行而未果.”

93) 宋秉璿, 『淵齋集·附錄』卷51, 『年譜』, <乙巳·壬戌>, 467쪽, “武溪謾輯與東鑑綱目及淵源錄, 亦多有商量處. 著述草稿, 極加精刪, 不必浩大可也, 此等事, 歸言于汝之仲父, 俾遂吾志也.”

94) 宋秉璿, 『淵齋集』卷5, 『書』, <上叔父(辛未四月十三日)>, 80쪽, “世道又至此境, 斯文晦塞, 無異於焚坑之時.”

을 “도통(道統)의 문헌들을 결집한” 『동유연원록』의 <서문>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문(斯文)[유학]과 세도(世道)의 재앙이, 아, 또한 극한에 이르렀으니, 누가 정주(程朱)의 서책에 힘을 써서, 그 원류를 거슬러 오르고 그 물결에 노닐어, (사문을) 높이고 (이단을) 물리치며, (이단을) 내치고 (세도를) 부지하여, 우리의 도[吾道]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밝혀지게끔 해서, 이미 (오도의) 실마리가 끊긴 천년 뒤를 잇기를 마치 정(鄭) 선생[포은]처럼 할 자가 있겠는가?”⁹⁵⁾

위의 인용문은 송병선이 사문의 진작(振作)과 세도의 부지(扶持)를 위한 목적에서 『무계만집』·『동감강목』·『동유연원록』 등의 저술에 임했다는 사실과 함께, 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8~1592)를 닮아야 할 동일시 모델로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확인시켜 준다. 또한 존양(尊攘)·벽부(闢扶)로 대변되는 춘추의리론의 기조가 저변을 관통하고 있는 정황도 간과할 수 없다. 송병선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고종에게 남긴 <유소(遺疏)>를 통해서 “5천 년 도맥(道脈)이 오늘 멀해졌으니, 신(臣)이 오늘 살아있은들 또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장차 돌아가서 우리 여러 거룩한 조상님[列聖祖] 및 옛 성현(聖賢)들을 지하에서 모시어, 춘추대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⁹⁶⁾라며 순도(純道)의 결심을 내비쳤던 이면에는, 그가 일관되게 견지했던 춘추의리사상에 입각해서 오도(吾道)의 회생양을 자처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송병선의 저술 활동이 사문의 진작과 세도의 부지, 그리고 5천 년 도맥의 존속이라는 지상 과제와 관련한 지적 행위였다면, 이어지는 제(2)항의 강학 활동의 경우, 일종의 전도주의(傳道主義)적 차원에서 전개된 활약의 성격을 띠는 것이 예상된다.

(2) 강학(講學) 활동

1865년(30세)에 명해진 만동묘 휘철령으로 인해 과거를 통한 관직 진출을

95)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東儒淵源錄序>, 394쪽, “斯文世道之厄。吁亦極矣, 孰能用力於程朱之書, 泝其源而游其波, 尊而攘之, 闢而扶之。使吾道。復明于世。以續千載既絕之統, 有如鄭先生者耶。”

96) 宋秉璿, 『淵齋集』 卷4, 「疏」, <遺疏(十二月二十九日)>, 74쪽, “嗚呼, 諸賊未誅, 勒約未繳 ... 五千年道脈, 今日而絕矣, 臣於今日, 生亦何爲, 將歸侍我列聖祖暨先聖賢於地下, 而不負春秋大義矣。”

단념했던 송병선의 경우, 차후인 32세 때부터 여러 벗들과 함께 회강(會講)을 통해 “경의(經義)를 강론(講論)”하는 활동의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⁹⁷⁾ 이와 동시에 겨울 한 철을 “천태산(天台山) 산중에 들어 『심경(心經)』을 읽기도” 하였고,⁹⁸⁾ 36세 12월에는 충북 영동의 영국사(寧國寺)에서 『맹자(孟子)』를 연구하느라 침식을 잊을 정도로 몰입하기도 했다.⁹⁹⁾ 송병선이 39세 때 선보인 『근사속록』이란, 그간에 축적된 독서와 사색 및 강론 활동에 힘입은 결과, 그의 학문적 깊이와 폭이 상당히 원숙해진 경지로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상과 같은 추세에 병행하여 1876년(41세) 12월에 이르러서는 “임하(林下)의 경학지사(經學之士)를 추천하라!”는 왕명에 따라 회덕 현감인 안영식(安榮植)에 의해 “향친(鄉薦)을 입는” 영예가 따랐다.¹⁰⁰⁾ 익년인 1877년에는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 1823~1907)이 “경술(經術)·덕망(德望)과 능히 가훈(家訓)을 잘 계승한” 등의 명목으로 조정에 천거한 끝에,¹⁰¹⁾ 동년 6월에 태릉참봉(泰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는 않았다.¹⁰²⁾ 동년 8월에는 경연관(經筵官)과 서연관(書筵官)에 뽑혀 임명되었고, 9월에는 “시강원(侍講院)의 자의(諮議)에 제수되는 은명을 입기도” 했지만, 역시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¹⁰³⁾ 그러나 1878년부터 매년 세초(歲初)에 내사(內賜)가 내려졌다.¹⁰⁴⁾ 송병선은 1880년(45세)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와 시강원 진선(進善)·찬선(贊善)에 명해진 데 이어 성균관궐주(成均館祭酒)에 제수됨으로써,¹⁰⁵⁾ 명실공히 산림(山林)을 대표하는 학행과 명망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이처럼 송병선은 40세를 전후로

97)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丁卯>, 427쪽, “五月, 會講于二止堂 ... 先生每與諸友, 會于此堂, 講論經義.”

98)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戊辰>, 428쪽, “冬, 入天台山中, 讀心經.”

99)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辛未>, 429쪽, “十二月 ... 讀孟子于寧國寺, 潛心玩學, 至忘寢食, 家人裹送衣食, 中置糖一封 ... 及其歸後始解, 則糖盡融著衾, 不可披, 其喫辛刻苦, 多類此.”

100)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乙亥>, 431쪽, “十二月, 被鄉薦, 上命諸道臣, 薦林下經學之士, 本倅安榮植, 以克紹庭訓, 深蹟經義, 薦先生.”

101)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丁丑>, 431쪽, “正月, 被道劾, 忠淸監司趙秉式, 以經術德望, 克紹家訓, 薦先生于朝.”

102)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丁丑>, 431쪽, “六月, 除泰陵參奉, 呈辭.”

103)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丁丑>, 432쪽, “八月, 拜經筵官書筵官, 又遣史官, 宣諭召, 上疏辭.”

104)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戊寅>, 432쪽, “正月, 祇受內賜亥囊與歲畫, 自是, 每年歲首例下.” 첫 번째 내사는 전년인 1877년 을사월에 내려졌다. “乙巳, 祇受內賜食物.”

105) 宋秉璫, 『淵齋集·附錄』卷50, 『年譜』, <庚辰>, 438쪽, “甲子, 特陞通政大夫, 仍拜吏曹參議, 兼侍講院贊善, 成均館祭酒.”

한 무렵에 ‘온포(蘊抱)’¹⁰⁶라는 고종의 지적처럼, 학문적 역량과 국가 사회적 평판이 서서히 고조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었음 알 수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제 그만의 독자적인 활약을 펼칠만한 내외적 조건이 성숙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그 연장선에서 <연보>에는 송병선이 1882년 4월에 “교궁(校宮)[향교]에 들어 명륜당에서 향음주례(鄉飲禮)를 거행하고, 『맹자』의 <호변장(好辯章)>을 강론(講)한”¹⁰⁷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벗이나 지인들과의 회강 모임에서 경전의 뜻을 상호 토론하곤 했던 학습의 장(場), 이를테면 1878년(43세) 4월에 “용문서당(龍門書堂)에서 회강”¹⁰⁸을 했던 등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강학 활동의 개시를 의미한다. 송병선은 “의리(義理)는 천하의 공변(公)이니, 어찌 자기의 견해(己見)로 편벽되게 집착하겠는가?”¹⁰⁹라며 성훈(性薰) 조종덕(趙鍾惠, 1858~1927)을 나무라기도 했다. 이 같은 송병선의 언술은 47세 이후로 전개된 강학 활동이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견지에서 궁리(窮理)를 도모하기 위한 지적 행위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송병선은 “학문을 강론함이 명쾌하지 못하면, 사정(邪正)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¹¹⁰ 이로써 미뤄보건대 송병선이 펼친 강학 활동은 다양한 정주학적 주제 사안들을 취급하는 가운데, 정심(正心)으로 귀결되는 도학적 맥락을 중시할 것임이 예상된다. 송병선이 고종에게 “매일 경연(經筵)을 여시어,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도학적 맥락에서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강학의 효과를 역설했던 장면도,¹¹¹ 군신 상호 간에 학문을 강론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바대로 1882년에 이르러 강학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활약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송병선 주도하에 체계적

106) 宋秉璫,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戊寅>, 432쪽, “二月 辛巳 壬午, 承敦召之命 ... 諭旨曰 ... 儒者之必展蘊抱, 世臣之必共休戚.” 온포란 가슴속에 깊이 품은 재주나 포부, 또는 그 재주나 포부를 뜻한다.

107) 宋秉璫,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壬午>, 442쪽, “四月, 入校宮, 行鄉飲禮于明倫堂, 講孟子好辯章.”

108) 宋秉璫, 『淵齋集·附錄』 卷50, 『年譜』, <乙巳>, 434쪽, “四月, 會講于龍門書堂.”

109) 宋秉璫, 『淵齋集』 卷4, 『書』, <答趙性薰鍾惠(乙未八月)>, 237쪽, “義理, 天下之公, 何可以己見偏執耶.”

110) 宋秉璫, 『淵齋集』 卷11, 『書』, <答禹汝七夏鞞(庚子三月晦日)>, 179쪽, “別紙所諭, 可見憂斯文之苦心, 而講學不明, 無以辨邪正, 晦翁所云.”

111) 宋秉璫, 『淵齋集·附錄』 卷53, 『行狀[宋秉璫]』, <己卯>, 481쪽, “伏望殿下, 日開經筵, 以懋聖學, 頻接召對, 以廣咨訪, 于以端本而澄源, 必期於朝廷百官, 四方萬民, 咸歸于正, 講學之效, 至於如此.”

인 강학 활동이 전개된 시점은 1885년 3월에 옥천의 “원계(遠溪)에 복축(卜築)한” 시점 이후부터였다. 특히 1888년 “3월에 여러 문하생[諸生]을 거느리고, 원계에 모여서 강론”¹¹²⁾을 펼친 장면을 묘사해 둔 아래의 기록은 “송(宋)나라의 이정(二程)에 견주곤 했던”¹¹³⁾ 송병선·병순 두 형제에 의해 연재학파가 공유된 정황을 방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무주의 서벽정에서 송병선이 주도한 강학 활동과 정자(亭子) 영건 방식과 관련하여 선행 모델로 작용하고 있었음이 대단히 주목된다.

“당시 사방의 배우는 자들 중에서, 백부[伯]·숙부[叔]의 문하에 출입하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매년 강회 하는 날에, 두 선생은 주자[朱]·송자[宋] 두 부자(夫子)의 유상(遺像)을 북쪽 벽에 들어 봉안하고, 여러 문하생을 거느리고 우러러 절하는 예식이 끝나면, 강학[講]을 개시하고 경전의 뜻을 묻고 답하였다.”¹¹⁴⁾

위의 인용문은 1888년을 전후로 한 무렵에 송병선·병순 형제가 각기 독자적인 문인 그룹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또 원계 지역에서의 합동 강회를 통해 연재학파가 공유되는 흐름에 편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실 송병선·병순 형제의 공동 문인록인 『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은 원계와 활산에서 한 글자씩을 취한 작명으로, 연재학파의 출현을 상징해 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춘추 강회를 개최하고, 주자와 송시열의 유상을 봉안했던 서벽정 경영도 윗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송병선은 서벽정에서 춘추 강회(講會)를 개최했고, 다수의 문하생들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¹⁵⁾ 송병순은 <백씨연재선생행장>을 통해서 “매년 봄·가을에 문생(門生)들을 거느리고 계(契)를 결성[修]해서 이곳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다.”¹¹⁶⁾고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두기도 했다. 이처럼 계 조직을 결성해서 학

112)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2, 『年譜』, <乙酉>, 692쪽, “三月率諸生, 講會于遠溪.”

113)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2, 『年譜』, <乙酉>, 692쪽, “蓋二先生氣像 ... 聯床論道, 時人比之宋之二程.”

114)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2, 『年譜』, <乙酉>, 692쪽, “時四方學者出入於先生伯叔之門者甚多, 每年會日, 二先生揭奉朱宋二夫子遺像於北壁, 率諸生行瞻拜禮訖, 開講問答經義.”

115)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壬辰>, 454쪽, “七月, 重建棲碧亭 ... 春秋會多士, 講學焉.”

116) 宋秉珣,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壬辰>, 640쪽, “每春秋, 率門生修契講學于此.”

적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은 연재학과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강학 활동이 체계적이면서 본격적인 수준에서 펼쳐졌던 정황을 방증해 준다.

한편 1896년 4월에는 아우인 송병순도 서벽정 강회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은 무주 군수[倅]인 운파(雲坡) 조병유(趙秉瑜)가 “한 고을의 여러 선비들을 모이게 하고, 이곳에서 강좌(講座)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¹¹⁷⁾ 조병유는 이듬해인 1897년 4월에도 “서벽정에 강좌를 마련하고, 백씨(伯氏)[연재]가 사석(師席)에 착석할 것을 청하고, 강학[講]이 끝난 뒤에는 운자[韻]를 뽑아 시를 창수(唱酬)한”¹¹⁸⁾ 기록도 남아 있다. 이 강회는 4월 보름에 시작해서 18일에 철강(輟講)했기에, 참석한 인원이나 소요된 시일이며 숙식 여건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대규모 강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송병순은 “경전을 잡고 술한 영준[英]이 집결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또 “밝은 달빛에 드리운 프락의 나뭇가지에도 술잔을 돌린” 성공적인 강회에 대한 만족감을 읊조려 두기도 했다.¹¹⁹⁾ 그런데 이 강회는 전반기인 춘계 강회 일이 4월 15일이었을 개연성과 함께, 조병유가 송병순을 스승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도 있다.

그런데 1896년(고종 33)에 무주에 군수로 부임한 양주(楊州)[본관] 조병유¹²⁰⁾는 2권 분량의 『주계읍지(朱溪邑誌)』를 최초로 제시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잠시 반추해 보도록 한다. 송병선은 “군(郡)의 산천(山川)·풍토(風土)·인물(人物)·사적(事蹟) 등이 기록으로 전하지 않았던”¹²¹⁾ 무주에서 조병유에 의해 『주계읍지』가 처음으로 편찬된 저간의 경위를 아래처럼 밝혀 두었다.

“공(公)은 틈틈이 널리 유적(遺蹟)을 찾아다니면서, 읍(邑)에 읍지(誌)가 없는 것을 개탄스러워 하였다. (이에) 이전에 들은 소문(舊聞)을 모아서 기록하고, 검하여 풍요(風謠)를 채집하여 2권으로 편찬하

117)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2, 『年譜』, <丙申>, 695쪽, “四月陪伯氏先生, 會講于棲碧亭, 茂朱倅趙秉瑜會一鄉多士, 設講于此.”

118) 宋秉珣, 『心石齋集』 卷3, 『詩〇七言律』, <茂朱使君趙秉瑜設講會于棲碧亭, 請伯氏陳師席, 講罷後拈韻唱酬(丁酉四月望日始會, 十八日輟講)>, 72-73쪽, “... 執經喜睹羣英集 ... 杯巡明月上庭枝 ... 不作空言各自期.”

119) 각주 117) 참조.

120)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朱溪邑誌序>, 410쪽, “上之三十二年丙申, 楊州趙侯秉瑜, 來守是郡.”

121)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朱溪邑誌序>, 410쪽, “若郡之山川風土人物事蹟未記傳, 則是何以異於史之闕文也哉.”

였다. 상세한 범례(凡例)와 정밀한 조리(條理)란, 질서 정연하고 명확해서,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을 정도다. 대개 (읍지와) 국사(國史)엔 비록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또한 죽히 한 고을의 문헌(文獻)을 징험할 수 있으니, 이는 또 이전 사람들이 미처 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임에도, 조 군수[侯]가 이를 능히 이룬 것이니, 그 과연 때맞춰 이곳에 다다른 것일진저!”¹²²⁾

윗글 속에는 조병유의 사명감과 열정에 힘입은 결과, 무주에 『주계읍지』가 출현한 경위와 함께, 읍지의 체제와 특징을 둘러싼 간략한 정보가 드러나 있다. 조병유는 1897년에 무주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을 중수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송병순이 칠언율시를 빌려서 “치적(治績)이 남주(南州)의 최고임을 알 수 있고, 고심(苦心)하여 향교[學]를 세워 낡은 것을 새로이 고친 때에”¹²³⁾ 운운한 예찬을 조병유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차후인 1899년(광무 3) 3월에도 송병선은 “여러 문하생을 이끌고 서벽정에서 강론”을 펼쳤는데, 이때 택한 교재는 『한천유편(寒泉遺編)』이었다.¹²⁴⁾ 춘계 강회를 마친 뒤에, 송병선은 송병순 등의 일행과 함께 무주와 인근한 경상우도 안음현(安陰縣)의 거연정(居然亭)·광풍루(光風樓)·수승대(搜勝臺)를 차례대로 심방하고,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초당(草堂)에서 향음주례를 거행하였다.¹²⁵⁾ 송병선은 산수향(山水鄉)으로 일컫는 안음현¹²⁶⁾에서 다시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의 옛 유적과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의 유지(遺址)를 둘러본 후에, 귀로에 문인 이조영(李祚永)과의 약속으로 아립(娥林)[거창]의 포충사(褒忠祠)에서 습례(習禮)와 강학을 진행하기도 했다.¹²⁷⁾ 송병선·병순 일행의 안음현 유람은 그즈음에 경상우도의 북부 권

122) 宋秉璿, 『淵齋集』 卷23, 「序」, <朱溪邑誌序>, 410쪽, “公餘博搜遺蹟, 慨然於邑之無誌, 收錄舊聞, 兼採風謠, 編爲二寫, 凡例之詳, 條理之密, 井井鑿鑿, 煥人耳目, 蓋與國史, 雖有大小之異, 而亦足以徵一鄉之文獻矣, 此又前人之所未遑, 而侯克成之, 其果有時存焉者歟.”

123) 宋秉珣, 『心石齋集』 卷3, 「詩〇七言律」, <茂朱使君趙秉璿設講會于棲碧亭, 請伯氏陳師席, 講罷後拈韻唱酬(丁酉四月翌日始會, 十八日輟講)>, 72-73쪽, “治績南州最可知, 苦心興學鼎新時.”

124)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安陰山水記>, 385쪽, “歲己亥暮春, 遠近士友, 會武溪山亭, 講寒泉遺編.”

125) 宋秉珣,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己亥>, 630쪽, “己亥三月, 率諸生講學于棲碧亭, 轉往安陰, 登覽居然亭·光風樓·搜勝臺, 行鄉飲禮于春翁草堂.”

126)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安陰山水記>, 385쪽, “安陰, 山水鄉也.”

127) 宋秉珣, 『心石齋集』 卷32, 「行狀」, <伯氏淵齋先生行狀·己亥>, 630쪽, “因訪桐溪舊蹟

역에 만만치 않은 연재학파의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차후 합천의 삼가(三嘉)에서 『연재집』이 간행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렇듯 지난날 원계에서의 합동 강회와 마찬가지로 송병순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서벽정 강회에 참석했던 일이란, 이 무렵에 송병선·병순 형제에 의해서 연재학파가 공유된 상태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또한 “호남·영남의 사이”에 자리한 서벽정 경영과 송병선 형제에 의한 강학 활동이 정기적으로 펼쳐진 결과, 장흥(44명)에 이어 무주는 전라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40여 명의 문인이 『계산연원록』에 등록되어 있고, 경상우도의 거창(47명)과 삼가(42명)¹²⁸⁾ 지역도 장흥·무주를 상회하는 연재학단(淵齋學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송병선의 서벽정 경영에는 영호남과 충청권 지역의 문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기도 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정황을 ‘주인옹[主翁][연재]은 12명이 공동으로 수창(酬唱)한 연구(聯句)를 통해서, “무이산 아래의 정자, 문(文)으로 사방[方四]이 모였다.”고 묘사한 바가 있다.¹²⁹⁾ <서벽정에서 『송자대전』의 ‘봉서사(鳳棲寺)’¹³⁰⁾ 운자를 뽑아 연구(聯句)하다>라는 긴 제목의 작품에 등장하는 문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문홍(金文洪)[남원(?)]·김이수(金頤壽)[밀양]·변효석(卞孝錫)[거창]·가조·정석채(鄭奭采)[옥천]·방용규(房容圭)[남원]·이병운(李柄運)[대구]·이병철(李柄轍)[성주]·신병민(愼炳民)[안음]·박기진(朴起震)[정읍(?)]·박래복(朴來復)[음성]·신태용(申泰庸)[연산(?)].”¹³¹⁾

葛川遺址, 迤向娥林之褒忠祠, 習禮講學.”; 宋秉璿, 『淵齋集』 卷22, 『雜著』, <遊安陰山水記>, 387쪽, “歸路迤向娥林之褒忠祠, 曾與李生允卿祚永有約也, 習禮講學.”

128) 김상기, 2017, 『淵齋學派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쪽.

129) 宋秉璿, 『淵齋集』 卷2, 『詩』, <棲碧亭, 拈宋子大全鳳棲寺韻, 聯句>, 38쪽, “武夷山下樹, 以文會方四(主翁) ...”

130) 宋時烈, 『宋子大全 I』 卷1(한국문집총간 108), 『詩〇五言古詩(四言附)』, <遊鳳棲寺, 以緣溪路轉深, 幽興何時已, 分韻得已字>, 민족문화추진회, 1986, 105쪽.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 1818~1903)는 『宋子大全隨筭』 卷1의 <賦詩>를 통해서 “봉서사는 회덕의 남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해졌다.(鳳棲寺在懷德南, 今廢.)”고 밝혀 두었다.

131) 宋秉璿, 『淵齋集』 卷2, 『詩』, <棲碧亭, 拈宋子大全鳳棲寺韻, 聯句>, 38쪽, “... 雨蓂頭流嶽, 風韻空林寺(金文洪), 眞源知在此, 諸子得其止(金頤壽), 傳法心惟一, 良箴戒無二(卞孝錫), 一部丁上書, 數句講未已(鄭奭采), 樞衣喜近藍, 盍簪誇御李(房容圭), 水月千載朗, 風烟九曲遙(李柄運), 有景瞎何模, 言志聖亦戲(李柄轍), 卜築知何日, 大隱世紛避(愼炳民), 狂瀾方濇蕩, 斯道復振起(朴起震), 流水洗塵心, 青山入詩議(朴來復), 遺儀多想像, 大義扶宗旨(申泰庸) ...”

차후인 1898년(63세)에는 송병선·병순 형제가 숙부선생(叔父先生)으로 호칭했던 송근수의 문집 원고[文稿]를 서벽정에서 등사(謄寫)하기도 했고,¹³²⁾ 5년 뒤인 1903년 7월에 “문하생들이 서벽정에 모여, 『송자대전[先子書]』의 습유(拾遺)를 정서(淨書)하였다.”고 포착해 둔 것이 서벽정과 관련된 마지막 기록에 해당한다. 그리고 1905년 12월 19에 중화전(中和殿)에서 고종과의 마지막 청대를 하였고, 강제로 낙향 당한 뒤에 12월 24일 오전[巳時]에 “석촌정사(石邨精舍)에서 순도(殉道)”함으로써, 향년 70세의 나이로 장엄하게 생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뒤인 1907년 3월에 송병순은 가형의 문집인 『연재집』을 간행하기 위한 역사(役事)를 무주의 서벽정에서 착수했지만, 미력한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¹³³⁾ 이에 송병순은 삼가의 창계원(滄溪院)으로 옮겨서 간역(刊役)을 진행했고, 1907년(69세) 가을에 이곳을 직접 찾아 “백씨 선생의 문집이 간행되는 일”을 살피기도 했다.¹³⁴⁾ 당시의 상황을 송증헌(宋曾憲)은 『심석재집』의 <연보>를 통해서 아래처럼 전언하고 있다.

“문하에 참여한 여러 사우(士友)들이 세상의 번고가 거듭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재 선생의 유문(遺文)이 혹여 흩어져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까를 두려워한 끝에, 급히 (유문을) 나뭇조각에 새길[登梓] 것을 도모하여, 간역[役]을 서벽정에서 베풀었으나, 갑자기 일의 형세에 구애됨이 발생하였기에, 장소를 삼가(三嘉)로 옮긴 까닭에, 선생이 가서 임하신 것이다.”¹³⁵⁾

그리하여 도합 53권에 1,942판으로 구성된 목판본 ‘연재송병선선생 문집책판’이 준성(竣成)되었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판본은 1910년에 서벽정으로 옮겨져 수장하다가, 다시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에 소재한 만인재(萬仞齋)의 장판각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듯 목판본 『연

132) 宋秉璿, 『淵齋集·附錄』 卷51, 『年譜』, <戊戌>, 458쪽, “六月, 謄寫叔父先生文稿于棲碧亭.”

133) 宋秉珣, 『心石齋集』 卷7, 『書』, <答安民玉鍾珉(丁未三月念四日)>, 139쪽, “舍伯遺集刊役, 設始于棲碧亭, 而事鉅力綿, 未知終克竣成否也.”

134)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5, 『年譜』, <丁未>, 705쪽, “秋如三嘉滄溪, 觀伯氏先生文集刊事.”

135) 宋秉珣, 『心石齋集·附錄』 卷35, 『年譜』, <丁未>, 705쪽, “及門諸士友以世變層出, 懼淵齋先生遺文或致散佚, 急謀登梓, 設役於棲碧亭, 旋以事勢有拘, 移所于三嘉, 故先生往臨焉.”

재집』 53권은 “호남·영남의 사이”에 터한 서벽정의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스승 사후에도 변함이 없었던 영호남 문인들의 존념(存念)의 정도를 대변해 주는 유집(遺集)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의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송병선이 고향인 회덕현을 벗어나서 옥천의 원계에서 자정노선을 이행하게 된 경위를 검토함과 동시에, 또한 무주의 덕유산 유곡(幽谷)에 서벽정을 건립하고 저술·강학·작시(作詩) 활동과 소요유를 통해서 자정노선을 심화시킨 양상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송병선이 실행한 자정노선이 암울한 회색(晦塞)의 시대에서 취한 차선의 대안이었으며, 1905년(70세)에 직면한 을사늑약에 맞서 “5천 년 도맥”의 이름으로 순도를 감행하기 이전 시기를 장식한 시국 대응 방식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논급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음미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송병선·병순 형제는 1865년의 만동묘 훼손령으로 인해 과거를 단념하는 결단을 내린 데 이어서, 1884년에 취해진 갑신변복령을 지켜보면서 현실에서의 정책적 기여를 행하는 관여(關與)의 방식 대신에, “경전을 안고 심산에 접어드는” 은둔 속의 자정노선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이에 송병선은 중제인 송병순이 정착한 옥천의 활산 지역과 인접한 원계로 이주를 단행하게 되었고, 이는 차후에 『계산연원록』으로 상징되는 연재학파의 출현을 예고하게 된다. 송병선은 자정노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학적 진리[吾道]를 위호하고 세도(世道)를 진작시키는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저술·강학 두 방면에 걸친 뚜렷한 활약상은 이를 잘 방증해 준다. 이에 원계에서 본격적인 강학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송병선은 56세 때 자정노선의 심화를 위한 방편상, 무주의 심산유곡에 별서(別墅)의 성격이 강한 강당형 건물인 서벽정을 건립하게 된다.

차후 송병선은 서벽정에서 『무계만집』과 『동감강목』 및 『무계시첩』(60세) 등의 저술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아우인 송병순과 더불어 계 조직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춘추 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독서와 저술·강학 활동 및 음풍영월로 점철된 은둔 일상을 이어나가게 된다. 특히 “호남·영남의 사이”에 터한 서벽정의 지리적 여건과 영향력 있는 강학 활동으로 인하여 무주·영동(41)과 거창·삼가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문인들이 『계산연원록』에 수록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송병선이 타계한 이후에 유집인 『연재집』 간행을 위한 역사(役事)가 서벽정에서 삼가의 창계로 옮겨진 정황도, 송병선이 서벽정에서 펼친 강학 활동과 학문적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송병선은 1905년에 고종과 청대한 직후에 강제로 낙향을 당했고, 곧이어 향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1886년에 창건했다가 화재로 인해 1892년에 중건한 서벽정은 어언 130년이 넘는 역사를 향유하고 있지만, 이 역사적·문화적 공간에 깃든 지난날의 구도적 열정과 우국충정은 행한 유적으로만 남아 있다. 이제 전북과 무주군은 서벽정에 서린 역사적 혼을 호출해 낼 만한 문화적 콘텐츠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23. 06. 24. / 심사개시일: 2023. 07. 24. / 게재확정일: 2023. 08. 23.

참고문헌

1. 인터넷 자료

- 『두산백과』, 『서벽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검색일: 2023.6.10.)
- 『디지털무주문화대전』, 『서벽정』. <http://www.grandculture.net/muju> (검색일: 2023.6.10.)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검색일: 2023.6.10.)
- 오인교, 2016.3.17., 『남도(南道) 정자기행(3257)-무주 서벽정(棲碧亭)』, 『한국매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벽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 (검색일: 2023.6.10.)

2. 한문원전자료

- 『周易』, 『列子』
- 柳麟錫, 2004, 『毅菴集 I』 한국문집총간 33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宋秉璫, 2004, 『淵齋集』 한국문집총간 33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宋秉珣, 2012, 『心石齋集』 한국문집총간 續143, 한국고전번역원.
- 宋時烈, 1986, 『宋子大全 I』 한국문집총간 108, 민족문화추진회.
- 韓章錫, 2004, 『眉山集』 한국문집총간 32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3. 논문

- 김상기, 2017, 『淵齋學派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9집, 5-44쪽.
- 김종수, 2019a, 『연재 송병선의 생애와 순국』, 『전북사학』 57호, 243-272쪽.
- 김종수, 2019b, 『德谷 趙承肅과 『咸安趙氏言行錄』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6권, 35-68쪽.

<Abstract>

**A Study on Yeonjae(淵齋) Song Byeong-seon(宋秉璿)'s
Self-comfortism and Construction(營建) of Seobyeokjeong
Pavilion(棲碧亭) in Mooju(茂朱)**

Kim Jong-su*

Yeonjae Song Byeong-seon who ac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a great Confucian scholar who shared the Yeonjae school(淵齋學派) with his juniors such as Shim Seok-jac(心石齋) and Song Byeong-soon(宋秉珣). Song Byeong-seon ended his life at the age of 70 by poisoning himself resisting against Eulsa Treaty (乙巳勒約) by the Japanese Empire. As a result, researches on Song Byeong-seon are focused on his last moment, the theory of Wijung Chuksa(衛正斥邪論), and formation process the Yeonjae school.

In this time's discussion, this study attempts research with Seobyeokjeong Pavilion located in Muju(茂朱), Jeollabuk-do that represents Song Byeong-seon's self-comfortism represented by so-called 'Pogyongipsan(抱經入山: Going into a mountain with scriptures to teach young students keeping traditional custom). On the other side of it, Gapsinbyeonboknyeong(甲申變服令: An executive order given in the year of Gapsin year to change national costume to western style) which was given in 1884 (at the age of 49) was a background for him to forget feelings left for the affairs of outside world and shift his ground to self-comfortism for protecting·developing 'Confucian truth[吾道]' through a secluded life in the mountains. Thus, Song Byeong-seon left his hometown Hoedeokhyeon(懷德縣) and moved to Wongye(遠溪), Okcheon(沃川) in 1885, and constructed Seobyeokjeong Pavilion in Muju the next year in 1886 (at 56).

Although construction of Seobyeokjeong Pavilion that symbolizes deepened aspect of Song's self-comfortism went through twists and turns such as recustruction caused by unexpected fire in 1892, self-comfortism which was a series of reading, pursuit of study·writing activities and writing a poem and playing for fun with a theme of bright moon and clear wind led to a triumphant

* Instructor at Semyung University

fruition. And Song Byeong-seon also led Yeonjae School by holding spring and autumn lectures(講會) and organizing a fraternity(契) in cooperation with his younger brother Song Byeong-soon. As a result, operation of Seobyekjeong Pavilion by Song Byeong-seon is considered that the place is a historic-cultural space that represents self-comfortism before Song performed before he devoted his life for justice and morality (殉道) in 1905 at the age of 70.

Key Words : Song Byeong-seon, Self-comfortism, Seobyekjeong Pavilion, Writing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The Yeonjae school